



한국 교회의 한 편을 파고들고 있는 가계저주론 및 가계치유론에는 하나의 전제가 깊이 깔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모든 질병과 사고와 실패, 가난 등은 나쁜 것 곧 저주요 건강과 안전과 성공과 부는 좋은 것, 곧 축복이라는 다분히 말초신경적인 전제이다. 가계저주론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풍요로운 성도의 삶이란 것은 질병과 사고와 실패에 시달리지 않는 평화로운 삶 정도를 말한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도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적인 축복관 내지 저주론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축복관과 저주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간의 축복으로 그리고 무엇을 인간에게 내리시는 저주로 규정하셨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인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발견한 진정한 축복, 진정한 신적 벌과 저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기록으로 남겼는지를 묻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혹은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에 관심을 가졌고 이것을 현상적, 현세적, 인본주의적,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복과 저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에게 대개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행복은 자주 같은 용어, 같은 현상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가계저

주론이 전제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성경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저주는 대개 사람에게 불행, 고난, 병, 사고 등으로 예고되고 또 나타나기도 한다. 축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저주와 인간의 불행의 용어들이 종종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가계저주론이 나열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을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저주와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행복이다’는 진술은 분명 성경적이다. 그러나 주어와 술어를 바꾼 등식 즉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는 진술은 성경적이지 않다.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의 불행이다’는 진술은 분명히 성경적이지만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저주이다’는 등식은 성경적이지 아닌 것이다.

성경적 축복관과 저주관을 관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는 이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관점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짧은 인생살이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신약시대의 관점을 첨가하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죄인때문에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믿으며 그의 구속적 주권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현세적, 물질적 저주는 사람에게